

지역 매 아리

정읍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뇌청춘 교실' 성황리 마무리

정읍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19일 치매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뇌청춘 교실'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뇌청춘 교실'은 지난 10월 2일부터 매주 수요일 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총 9회에 걸쳐 운영됐으며 만 60세 이상의 지역주민 11명이 참여했다.

이 사업은 치매예방을 목적으로 어르신들의 뇌 운동을 활성화 시키고, 주요 인지영역을 복합적으로 다룸으로써 인지능력의 향상과 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강현이 강사는 치매예방체조와 워크북, 교육활동을 비롯하여 교육 전후의 치매선별검사, 주관적 기억감퇴 평가, 단축형 노인우울척도 등의 사전·사후 평가 등을 담당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의회 제260회 정례회 폐회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60회 제2차 정례회를 지난 11월 19일부터 31일간 운영하고 19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 2018년도 2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총 27건의 의안을 처리했고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2019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가 각각 진행됐다.

2019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액인 5,576억원보다 262억원(4.68%) 증가한 5,838억원으로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는 5,65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82억원이다.

또한 올해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교부세 등의 변동으로 세입세출 예산 정리를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실시됐으며 최종 의결된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 6,042억원보다 379억원(6.26%)이 증가한 6,421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194억원, 특별회계가 227억원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가축이 건강해야 사람도 행복'

Eco축산 청정정읍 조성사업 본격 시동

정읍시(시장 유진섭)가 예코(Eco) 축산 청정 정읍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19년부터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co축산 청정 정읍조성' 사업은 축산업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축산환경(분뇨, 냄새), 가축건강(AI, 구제역)을 능동적으로 해결하여 궁극적으로 가축과 사람이 모두 건강한 동물복지 축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축산환경개선과 질병관리 등 2개 분야, 16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간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총사업비는 민자 하기로 하였으며 총사업비는 민자 하기로 하였으며 총사업비는 민자 하기로 하였다.

특히 분야별로 우선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분류하여 시민적 합의를 유도하고,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국가 예산의 적극적 확보를 통해 정읍의 축산을 지속가능한 생태축산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축산환경개선분야는 ▲시민소통형 축산악취 관리(축산악취 기동 처리반 운영, 축산악취 관제시스템 구축, 축산악취 저감제 자동살포 시설, 예코축산 클러스터 사업단 운영) ▲시민 공감 청정축산 구축(돈사 악취 개선



정읍시 축산농가 자료사진.

시범 농장, 친환경 한돈 시범특구단지 조성, 액비 재순환 돈사 악취 개선사업) ▲문제해결형 예코축산(프로바이오틱스 활용 미생물 효용 재고, 분뇨처리 신재생 발전시설 설치)이다.

또한 질병통합관리 3대 전략은 ▲AI 발생역제(동절기 가금류 휴업보상, 주요축산시설의 거점 소독시설 구축사업, 질병대응체계구축 위한 가상훈련 상설 운영체계 구축) ▲질병 거점관리 체계구축(농장사양 질병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주요축산관련차량 이동경로 거점 소독시설 설치 확대) ▲예코축산 동물복지형 축산(농장별 전담 컨설팅 전문가 지정 운영, 예코축산 동물복지형 축사지

원)이다. 특히 2019년에는 우선과제로 선정된 시민소통형 축산 악취 관리를 위하여 4개 사업에 총 12억7500만원을 투입하여, 축산악취의 개선 및 절감을 위한 각종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궁극적으로는 돈사 악취를 제로화하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축산의 4대 문제(분뇨처리, 축산냄새, 가축질병, 안전한 축산물)에 대해 개별적 문제가 아닌 하나의 연관된 어젠더(Agenda)로 접근하여 종합적이고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서 축산농가와 시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복지형 Eco 축산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공감행정으로 군민 속으로 더 가까이

고창군 새해 사자성어 '평이근민(平易近民)' 선정·발표

유기상 고창군수가 19일 '군민이 알기 쉬운 공감행정으로 군민 속으로 가까이 가겠다'는 의미의 '평이근민(平易近民)'을 2019년도 새해 사자성어로 선정·발표했다. 유 군수는 이날 "장기화된 경기 침체 등 그 어느 때 보다 군민중심·군민우선의 현장행정, 공감행정이 절실히 요구 된다"고 전제한 뒤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민을 섬기는 행정으로 더 친근하게 군민 속으로 들어가 군민과 울려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유 군수는 "행정이 간소하고 쉽지 않으면 백성들이 다가오지 않지만, 군민들에게 쉽게 다가간다면 민심이 돌아온다"는 뜻에서 유래한 고사성어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군의회 의정비 최종 결정

부안군은 19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8대 부안군의회 의정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위원들의 호선으로 임기대 위원이 위원장으로 결정돼 회의를 주재했으며 의정비는 주민수, 지역 소득수준, 자치단체 재정능력, 물가상승률, 지방의회 활동실적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됐다.

위원회는 내년도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현재와 동일하게 확정했다. 현재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연 1320만원),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하게 책정돼 있다. 월정수당은 현재 월 156만 5600원(연 1878만원)에서 2.6% 인상(월 4만 700원)된 월 160만 6300원(연 1927만원)으로 결정했으며 오는 2020년에서 2022년도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을 적용하기로 했다.

의정비심의회의 결정내용은 부안군수와 부안군의회 의정에게 즉시 통보됐으며 부안군의회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인상된 의정비가 지급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하천제방 정비 평가 3년 연속 전북도 기관 표창

정읍시는 지난 18일 전북도가 주관하는 '2018년 하천제방 정비'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다.

이로써 정읍시는 2016년 최우수기관, 2017년 최우수기관에 이어 2018년 우수기관으로 3년 연속 표창을 받는 성과를 냈다.

전라북도는 지난달 26일부터 30까지 5일간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하천 제방과 부속물에 대한 유지관리 상태와 하천의 기능유지 및 재해 사전대비 상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하천제방 평가는 도내 14개 시·군 지방하천 183개소에 대해 제방의 호안 정비, 하도정비, 축제정비, 하천 공작물 정비 등 6개 분야 15개 지표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평가 했다. 시는 올해 하천제방 정비를 위해 시비 19억 2천만원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하천 시설에 대



정읍시가 지난 18일 전북도가 주관하는 '2018년 하천제방 정비'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다.

해 독마루 요철정비와 축제정비, 수문 등의 하천 시설물 정비, 퇴적도 제거, 불법행위 예방 및 지장수목 제거 등 재해 예방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결과 종합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 2018년에도 우수 시로 선

정됐다. 유진섭 시장은 "하천 정비를 더 철저히 해 재해에 안전하면서도 많은 시민이 즐겨 찾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하천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통 쌍화차거리 조성으로 골목경제 활력 가속

정읍시, 용역 최종보고회 가져

정읍시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의 밑그림이 될 '전통 쌍화차거리 조성'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가 19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개최됐다.

유진섭 시장을 비롯한 골목상인과 시민의, 전문가들이 함께한 최종보고회에서는 쌍화차거리 활성화 방안, 거리 경관개선, 골목축제 등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전통쌍화차거리 조성사업은 쌍화차거리 주민들이 행정과 협업을 통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5억원, 시비5억원 등 총 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는 1980년대부터 자생적으로 형성된 쌍화차 전통차집 골목

의 쌍화차라는 독창성 있는 콘텐츠를 '건강과 웰빙'이라는 음식문화로 재창조하여 정읍을 대표하는 음식특화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골목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골목경제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아래 적극추진하고 있다. 관광객들이 쌍화차거리를 방문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해 폐가, 골목축제, 주민역량 강화사업 등을 통한 지역골목 브랜드화와 낙후된 건물들의 경관개선,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 창업물 조성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시는 쌍화차거리 주민과 상인들로 구성된 '정읍 쌍화차거리 협의회'를 구성해 향후 골목경제를 이끌어 나갈 체제로서 역할을 하게 될 구심점을 마련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several bottles of wine, a cartoon bear mascot, and various gift set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부안강산뽕주', and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The ad lists different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quantities.